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상의 기호와 의미에 관한
시각적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조 송

일상의 기호와 의미에 관한 시각적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조 송

인 준 서

조 송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술의 일부분으로서 예술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서 모두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으며 이러한 각자의 공간에서 파생되는 ‘일상의 예술’이란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어내는 일상의 결과물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며 걸작으로 평가되는 예술가가 빚어내는 작품 역시 삶의 또 다른 한쪽일 뿐이다. 구석기 시대의 예술은 의식주와 같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로서 사회적 규범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래와 물고기 등의 조각은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인 의미로서 부족민을 결속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했다. 이렇듯 고대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예술의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갔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일상’은 각자의 독특한 삶의 기록이며, 개개인의 예술이다. 우리는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제도와 관습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이념과 이미지들을 접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 사회의 제도, 역사 또는 문화적인 힘으로 생성된 수많은 생각과 의미들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하면서부터 우리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의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자연스러운 것을 설정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개인적인 시각의 차이를 가상의 공간 속 등장인물들의 관계나 사람의 초상을 통해 설명한다. 일상생활을 하며 본인의 시선으로 보고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과 이미지들을 하나의 단순한 기호로 탈바꿈 시켜 나타내는 작품들을 통해 마치 객관적인 진리처럼 직조된 이미지들에게서 필연성을 소거시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모습들을 공개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가치가 있는 고유한 신화를 지닌다는 기호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사회의 인식과 이미지의 단편들을 통해 다수의 보편적인 생각들을 실제 사물의 본질, 즉 객관적인 진리로서 생각하게 되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자연스러움'이라는 가장 거대한 환상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일상의 한 장면도 각자의 독특한 삶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논고에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일상생활 속의 기호학	3
1. 기호학적 요소로서의 예술	3
2. 현실 속 이미지의 상상작용	7
III. 삶에 투영된 조형성	10
1. 인물의 초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	10
2. 일상 속에 표현된 조형적 의미	12
IV. 작품 분석	14
V. 결론	36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초상화 시리즈 전체 이미지, 각 31×23cm 2008-2009	16
[작품 2] 고기가 이에 낀 할아버지의 초상, 31×23cm 2008	17
[작품 3] 5년간 졸업을 못한 어느 여중생의 초상, 31×23cm 2009	18
[작품 4] 故 흑염소, 31×23cm 2008	19
[작품 5] 비웃음과 무거움, 긴장감과 적막함 뿐인 공간, 107×142cm 2009	22
[작품 6] 왜 모두들 이성을 잃을까, 97×130cm 2009	23
[작품 7] ‘타타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모습, 122×192cm 2008	26
[작품 8] 지금까지의 모든 건 그저 허상이다, 95×131cm 2008	28
[작품 9] 내 슬픔을 새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118×147cm 2009	30
[작품 10] 내 슬픔을 꽃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45×45cm 2009	31
[작품 11] 내 슬픔을 생선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113×124cm 2009	32
[작품 12] 뭐 우리도 그닥 알고싶지 않다, 38×85cm 2009	33

도 판 목 차

[도판 1] 바실리 칸딘스키, 〈노랑, 빨강, 파랑〉

[도판 2] 르네 마그리트, 〈이미지의 배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

[도판 3] 카라바조,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도판 4] 피테르 브뤼헬, 〈농부의 혼례잔치〉

[도판 5] 하르멘츠 반 레인 렘브란트, 〈34세의 자화상〉

하르멘츠 반 레인 렘브란트, 〈63세의 자화상〉

[도판 6] 채용신, 〈최익현 초상〉

I. 서론

인간은 문자를 포함한 이미지의 상징(symbol)과 상(icon), 지표(index)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서로 의사를 소통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의미작용과 표현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거나, 미학적으로 멋진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규정짓고, 우리는 그에 따른 자신만의 시각적인 틀을 완성시켜 나가며 사회적인 틀로 완성된 이러한 통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어느새 다수의 의견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그 사회적인 규범의 틀에 벗어난 소수의 시선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자연스럽다’ (여기에는 ‘당연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의 오류 대해서 롤랑 바르트(R. Barthes, 1915-1980)의 기호학적 시선으로 설명하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현대사회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중 하나는 그 사회의 제도와 지적관습이 일반적으로 ‘사물의 본성(자연)’이라 불리는 것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두 번째 로는 언어를 사회적 규약의 ‘기호’라기보다는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고정관념의 오류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시선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바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 속 이미지의 상상작용에서 비롯된 일상의 공간과 여러 인물들의 초상을 하나의 기호로 접근한 분석을 통해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형성된 개인적인 삶의 공간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상의 예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험과 환경들은 각자

의 주관적인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자신만의 시각을 만들어 가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상’이라는 예술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적 또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자신만의 사상을 모든 사물과 인물, 자연 현상 등에 투영시키고, 현실과 가상의 공간속 경계가 흐려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미지의 상상작용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본인의 주관적인 기호학적 시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일상생활 속의 기호학

1. 기호학적 요소로서의 예술

우리는 기호들의 세계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 거리의 신호등에서부터 밤하늘의 별자리에 이르기까지, 꿈결 속의 모상에서 무지개의 일곱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이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기호이다. 우리는 기호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며 기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기호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을 꿈꾼다. 이처럼 기호들은 인간의 삶과 깊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호학¹⁾은 실상 일상생활 속에 널리 퍼져있으며 기호학의 이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상을 새롭게 관찰하고 음미하고 해석하는 신선한 시각을 준다.²⁾

이러한 기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호의 대표적인 몇 가지 종류와 성격에 대해 롤랑 바르트(R. Barthes, 1915-1980)³⁾가 정교화한 기호의 정의는 우선 기호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기표, 기의, 그리고 기호 자체이다. ‘기표’는 나타낸 형식이며 ‘기의’는 사물의 개념이다. 이중 세 번째 요소, 즉 ‘기호’ 자체는 기표와 기의가 연합하여 의미작용을 만들어낸 새로운 요소인 것이다. 가령 프랑스 군복을 입은 한 흑인 병사가 프랑스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는

1) 기호학[記號學, Semiotics]: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호를 지배하는 법칙과 기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호들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해석하며 공유하는 행위와 그 정신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넓은 의미로 기호의 기능과 본성, 의미 작용과 표현,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2)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김경용 역, 민음사, 1994, pp.11-18

3) 롤랑 바르트(R. Barthes, 1915-1980):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참여적 실존주의자로 후기에는 기호 언어학자에서 원전 비평가로 1960년대와 1970년대 프랑스의 이론가 중 가장 기발하고 재간하고 대담한 이론가였다.

모습의 사진이 있다. 이 사진 속에서 기표는 시각이미지로서 드러난 프랑스 국기에 경의를 표하는 흑인 병사의 그림 자체이며 한 흑인 청년이 프랑스식 경례를 하고 있는 기의와 결합해 프랑스라는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상이한 인종이라는 생물학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작용인 기호를 낳는다. 이처럼 동 시대를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시각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기호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려는 시도라고 요약될 수 있고,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보아온 것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주위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준다. 이렇듯 기호학은 우리 모두의 행동에 있어서 그 대상이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⁴⁾

또한 일상 속에 떠도는 여러 기호들은 이데올로기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예술’ 현상의 객관적 연구는 예술가에 의해 창조된 감각적 상징, 미적대상, 그리고 기호화된 사물과의 관계, 즉 사회현상의 전체 맥락을 지시하는 관계로 구성된 기호로서의 예술 작품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그 창작자의 의식의 개별적 상태나 그 작품을 인지하는 주체의 개별적 상태와 동일시 될 수 없고 그것은 ‘미적 대상’으로만 존재하며 그 위치는 집단 전체의 의식 속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기호학적인 입장으로부터 예술 작품을 바라보기는 힘들다. 미적 대상으로만, 순수한 이미지로의 작품 수용을 위해서는 요컨대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소위 오류가 없는 판단을 위한 특출한 능력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보편적으로 자신에게 이미 알려진 사례와 현상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해줄 것을 찾게 되며, 따라서 예술 작품을 흔히 주관적인 상상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된다.⁵⁾ 이러한 이미지의 주관적인 판단은 개인의 경

4) 「현대의 신화」, 롤랑 바르트 역, 동문선, 1997, pp.282-291

5) 「봉인된 시간(영화 예술의 미학과 시학)」,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역, 분도 출판사, 1991, p.57

힘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고정관념을 낳게 되고 작품, 그 자체의 순수한 수용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주제(테마, 내용)’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제가 맨 처음에 그 작품의 의사소통적 의미로 작용하는 예술들이 있다. 사실 가장 형식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예술작품의 모든 요소는 그 고유의 의사소통적 가치를 보유하는데 이것은 ‘주제’와는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회화의 색과 선은 심지어 칸딘스키(Kandinsky, 1866-1944)의 <절대 회화>⁶⁾나 일부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처럼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도 한다.⁷⁾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의 제시는 상징으로서 사물을 채택하고 상징과 사물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무시한다. 이처럼 시각적 설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대했던 대상의 모습을 낯설게 함으로써 인간의 지각을 자극하고 그 결과 주목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초현실주의적 이미지의 제시는 낯익은 대상(기표)에 낯선 개념(기의)을 부과하여 상상의 효과를 극대화 하게 한다. 르네 마그리트는 파이프를 그려 놓고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적어 놓는다. 작가는 정작 파이프의 모습을 똑같이 그려 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일까? 작품 제목은 ‘이미지의 배반’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파이프 그림인데, 마그리트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모순된 그림과 문장 앞에서 이 작품의 의미는 작가가 던지는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하는 관람자의 몫이 된다. 작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지도 언어도 이 작품 속에서 서로를 배반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파이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진짜 파이프가 아니라 단지 파이프를 닮은 허상인 그림일 따름이다. 정작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이미지의 배반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림이나 언어

6) 칸딘스키(Kandinsky, 1866-1944)의 절대회화: 미의 절대적인 요소 즉 점, 선, 면, 색처럼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절대 순수를 표현 하고자 함.

7) 「기호학과 시각예술」, 노만 브라이슨 역, 시각과 언어, 1995, pp.116-117

가 지시하는 대상을 동일시하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⁸⁾ 또한 기호학적 요소로서의 이미지를 읽어보면,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⁹⁾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그림의 손은 ‘경고’를 의미하는 하나의 기호로 작용한다. 그림들 속에서 보여 지는 기호(피, 얼굴, 손, 칼)들은 응시의 속성을 지니며, 응시는 관객을 작품으로 한발 끌어들이고 작품과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크 라캉(Jaques Lacan, 1901-1981)의 〈응시이론〉¹⁰⁾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관객이 하는 모든 행동, 관객이 보는 모든 것은 구조화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론 적으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기호적 총합은 현대 사회에서 놀라울 정도로 넘쳐나며,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서 수용하고 있다.

기호학은 시각으로서, 예술적 개념도구 로서, 그리고 하나의 경고로서 시각예술 작품을 둘러싼 제반여건과 작품의 세부적 분석에 유용한 개념들을 제공 한다.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기호학적 입장에 있는 롤랑 바르트는 모든 것이 신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신화라는 것은 이제껏 상식적으로 이해해온 아테네의 신전에 모여 있는 신들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파생되는 일상의 모습 또는 신문 잡지의 기사, 소설, 시, 평론, 영화, TV 등 생활 속 이미지나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담론들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8) 예술세계 2008, 제 5호

9)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유디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대인 과부로 아시리아군(軍)에 포위되었던 페르시아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단칼에 베어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내용의 작품.

10) 자크 라캉(Jaques Lacan, 1901-1981)의 〈응시이론〉:라캉이 응시이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맨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의 눈에든 색안경이 씌어져 있고, 이러한 인식은 비단 주체의 시각계를 넘어 사회, 문화적 의미로 까지 확장된다. 이렇듯 응시이론은 시각의 상호성과 지각의 사회적 영역이 중심 개념으로 강조된다.

하나의 신화로써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한 공간 속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존재들이며, 사회적으로 형성된 시각이 투영된 하나의 기호들이다. 이처럼 지금의 현대 사회 속에 넘쳐나는 이미지와 문화의 홍수 속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화 할 수 있는 기호학은 우리의 의식, 또는 기호가 슬며시 보여주는 표상으로의 세계에서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동 시대의 역사와 현재의 기호올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2. 현실 속 이미지의 상상작용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로서 우리는 미디어 시대의 폭주하는 이미지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감각 기관에 대한 자극작용이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映像)을 우리는 흔히 ‘이미지’라 부른다. 시각적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임에 틀림없지만, 이미지는 도형적 이미지(그림, 사진, 조상, 도안), 광학적 이미지(영상, 투사), 지각적 이미지(감각자료, 외모), 정신적 이미지(꿈, 기억, 관념, 환상), 언어적 이미지(은유, 서술) 또한 포함한다. 그래서 눈이 먼 사람에게도 이미지는 마음에 떠오르며, 눈과 귀를 다 못 쓰는 사람의 마음에도 이미지는 생생하게 존재한다. 이미지의 대상은 마음의 밖에 있는 물리적 실체 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안에 있는 개념적 실체 일 수도 있다. 외부대상체가 마음에 이미지를 인각하는 의미작용은 흔히 지각작용(Perception)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내부대상체가 마음에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의미작용은 상상작용(Imagination)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이미지는 항상 마음속에서도 존재한다. 마음이란 개념의 망상조직

이며, 마음은 개념의 투사막이다. 이러한 마음의 정의로부터 지각작용과 상상작용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작용이란 저 밖의 현실에서 마음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형상이다. 수동적 지각작용이 잡은 감각자료에서 마음이 보고자 한 어떤 유사 개념체 들을 서로 맞추어 보고 서로 같은 것을 찾아냈을 때, 바로 그 유사 개념체에 의해서 선택된 감각자료는 이해된다. 달이 달로 보이는 것은 달이 달이기 때문이 아니라, 눈의 망막에 비친 달이 마음속에 있는 개념의 투사막에서 찾은 달이라는 내부 이미지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상작용도 마음이 개념의 투사막에 떠올리고자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인데, 본인의 작품 역시 일상생활을 하며 지나가는 여러 사물이나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 주관적인 개념의 투사막에서 의미작용을 하여 본인의 공간 또는 인물들을 완성한다. 이러한 시각의 의미작용은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것, 좀 더 정확히는 심적-논리(Psycho-logic)에 기인하는 현상이고, 심적-논리가 비슷함을 긍정함으로써 이미지는 성립된다. 이미지가 갖는 근본적인 모호성은 이미지의 또 다른 기의이며, 모호한 이미지는 우리의 느낌을 열고 지각의 마당에 들어와서 오직 느낌의 수준에서만 우리와 유희하는 기호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성적, 논리적 담론을 회피하며 그것은 뇌로 이해되는 대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¹¹⁾ 이미지가 우리의 정서를 요리하는 동안 우리는 억측과 가설을 내세워 논리적 담론을 펴지만, 그것이 이미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미지는 기의를 인간의 자유로운 담론에 위양하고, 늘 모호한 기표로 남고자 하는 특별한 기호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방식에 의하여 이미지는 실제로 느낌에 와 닿는 저 밖의 물질계와 느낌의 이면에 펼쳐지는 의식과 논리로 된 관념적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본인의 작품 속 여러 인물들의 초상이나 한정된 공간 안에서 부딪히며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림

11)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김경용 역, 민음사, 1996, pp.78-79, p82

속 등장인물들은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건너온 마음 속 이미지들의 표상이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미지 들을 접하며 자신의 내면에 기인한 의미작용을 하고, 그 축적된 이미지들로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Ⅲ. 삶에 투영된 조형성

1. 인물의 초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살아있는 이의 초상화는 사회가 그들에게 부과한 의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한 개인의 특질을 표현 한다. 이처럼 초상화란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정 인물을 그려내는 회화로서 크게 보아 인물화의 일부분에 속한다.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¹²⁾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대상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마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겉모습만을 보고 그 인물의 내적인 면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상화에서 정신을 묘사하는 것은 곧 얼굴을 묘사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기록화로서의 특징을 지닌 초상화는 역사적인 감계(鑑戒)를 위해서나 자기성찰을 위해서 그려졌음은 동서양을 통해서 공통된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예교적 목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화가가 스스로를 객관화 하여 성찰하기 위해서 그리기도 하였다.¹³⁾ 예를 들어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의 자화상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면과 일생을 함축적으로 기록하는 일종의 연대기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1850-1941)의 1910년 전후로 제작된 우국지사들의 초상화처럼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지켜보며 현실에 대항하는 격동과 변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처럼 초상화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은 인물의 얼굴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적인 부분과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 인물의 고유한 내면적

12) 「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 조선미 역, 문예 출판사, 2007, p.95

13) 「석지 채용신」, 국립 현대 미술관 역, 삶과 꿈, 2001, p.14

인 부분까지 포함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축적해 나가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인물을 보고 나서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마음속에 인각되어 남을 때까지 적어도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지각의 순간이고, 그에 뒤따르는 서술의 과정이 있다. 첫 순간에 잡히는 것은 자연 상태의 비교적 순수한 외모이다. 그러나 이 순수한 형은 후자의 과정에서 의식과 논리에 의해 변색된다. 구상적 이미지(외부 이미지)와 정신적 이미지(내부 이미지)가 서로 맞서면서 정신적 이미지의 기선에 의한 허구적 변증법이 일어나게 된다. 외부 이미지와 내부 이미지 사이의 거리는 대체로 자연과 문화의 거리와 같다. 자연은 주어진 것이고, 문화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이다. 이렇듯 외부로 보이는 인물의 얼굴은 정신적 이미지의 기선제압에 압도당하여 우리는 은연중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부터 그 사람의 성격과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가령 얼굴이 하얗고 가름한 여성은 청순하다 던지, 아님 얼굴이 험상궂은 남자는 성격이 거칠거나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나 그 나라와 시대의 미적 기준에 의거하여 성립되며, 이것은 그 사람의 순수한 자연 상태의 본모습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본인의 초상화 시리즈에서 재현하였는데, 인물의 순수한 形을 바탕으로 정한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제목으로 표현한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기표인 구상적 이미지와 마음속의 기의가 합쳐진 하나의 기호적 표상이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본인의 시선 속 여러 인물들은 국적과 성(性) 또는 동물과 인간이라는 모든 것의 규정을 뛰어넘어 하나의 고유한 신화 속 위인이 된다. 또한 초상화 시리즈에서 외부로부터 나오는 이미지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부 이미지보다 훨씬 우월하다. 여기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공생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텍스트를 읽어야 완성되는 인물의 겉모습과 개인사는 작품의

의도와 인물을 드러내 감상자로부터 상상하게끔 만들지 않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대신 설명하는 일을 보는 사람에게 맡겨 버리는 추상미술의 개념과는 반대된다. 어쩌면 추상 그림의 변증론은 단순하다. 그것은 설명을 위해 그린 것이 아니고, ‘무제’와 같은 제목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기를 얻으며 그들의 말을 기다리면서 완성되는 것이다. 관객은 미술작품에서 작가의 의도와 의미를 찾아 보지만 그림의 표면에 나타난 이미지만으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목을 보거나 서평을 읽어본다. 하지만 그 또한 속 시원하게 알아차릴 수는 없다. 그러나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초상화의 제목은 그 인물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관람자로 하여금 그들의 고유한 생각의 틀을 잠시 놓고 작가가 부여한 객관적인 인물의 모습을 감상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현한 방법이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의 객관적인 기호로서 나타낸 인물들을 통해 현대사회속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였다.

2. 일상 속에 표현된 조형적 의미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은 그리 멀지 않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냉장고의 문 속, 아이 침대 밑의 공간, 거실 벽, 집 앞의 작은 놀이터 등 무엇이든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특별한 공간을 규정해 놓고 흔히 마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어떤 오페라 극장의 음향 시설은 뛰어나고, 샤프트르 성당은 웅장하면서도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공간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마법이 실제로 그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공간이 일상의 삶에서 일탈한 것에 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공간이 마법의 힘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열망을 표현한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평

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의미로 가득 채운다면 어떤 공간이든 특별해 질 수 있다.¹⁴⁾

이러한 특별한 자신만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 작품을 연구하고 탄생시켜 나간 피테르 브뤼헬(Pieter Bruegel, 1525경-1569)¹⁵⁾은 예전에는 무시되었던 삶의 영역을 그린 화가였다. 브뤼헬이 살던 시대의 유럽 화가들은 주로 종교와 고전에서 주제를 취했지만 그는 일상의 주변 환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부유하고 중요한 인물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인 농부, 농사일꾼, 그들의 집과 마을 등 그가 살던 시대의 일상생활을 그렸다. 이렇듯 일상의 생활 속 공간이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독특하지만 내적인 조화를 갖춘 세계를 창조해 내기 때문이다. 개인의 내적 조화를 갖춘 세계 속 이미지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떠올랐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소중한 내적 자산과 자신만의 통찰력을 얻게 된다. 그것은 불현 듯 떠오른 하나의 생각이나 순간, 이미지, 질문, 독특한 표현 등의 열망에 관련된 것들이 될 수 있고,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탐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창고에 저장된 이미지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본인의 공간을 표현한 작품들은 기억의 조각이 퍼즐처럼 얽혀져서 완성된, ‘일상’ 이라는 기억의 집합체 이다. 그 공간은 상상에 의한 가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흔히 지나치며 볼 수 있는 평범한 우리의 생활 속 장면 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며 저장된 여러 가지 기억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또 다른 삶의 공간으로 표현하였고 그것은 평범하고 친숙하여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파생되는 열망의 표현과도 같다.

14)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에릭 부스 역, 예코의 서재, 2009, p.120

15) 피테르 브뤼헬(Pieter Bruegel, 1525경-1569): 네덜란드의 화가 피테르 브뤼헬은 16세기 농촌과 작은 도시 공동체의 삶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해낸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가 속한 시대에는 종교와 신화적 주제의 그림이 유행하였던데 반하여 그가 그린 그림은 농부의 혼례 춤 등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IV.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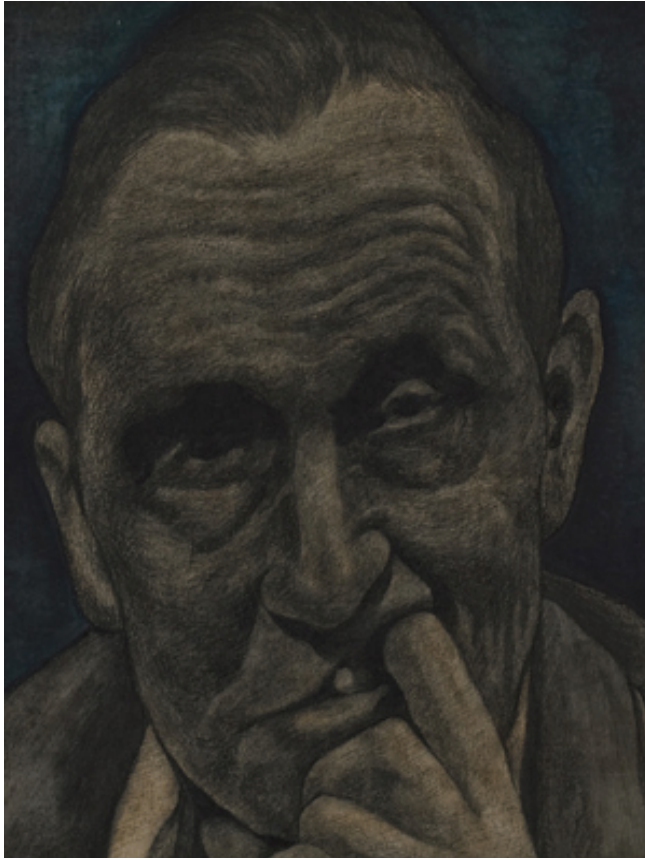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일상의 파편들은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의 한 부분이며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예술이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읽어나가고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며 사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시대의 사회현상 또는 역사에 따라 자신만의 시각은 확립되고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위를 갖게 되고 결혼을 하여 아이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들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정한 사회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그것은 단순한 통계적인 수치이고 삶의 한 방식일 뿐이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는 언어와 음식, 문화, 미적인 가치관 등은 각각의 나라와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령 뚱뚱하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과 균형 잡힌 체격에 하얀 피부의 선한 인상의 사람 중 우리는 은연중에 정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은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얀 피부의 체격이 좋은 사람도 뚱뚱하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보다 더 무섭고 거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적인 고정관념은 직접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차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며 사실 그러한 방식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들이 많다. 현대 사회 속에 살면서 뿌리 깊게 내린 고정관념과 편견의 잣대는 자신만의 시각적인 틀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통속되어온 시선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그에 벗어난 시선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고정관념의 오류는 본인의 시선으로 본 현실 속 또는 가상의 공간 속 인물들의 관계와 이미지를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현재의 모습에서 확립된 생각의 틀이 이미지를 통해 투영되고, 일상의 다양한 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보편적인 감정들과 여러 인물들의 겉모습(외형적 모습)에 대한 생각을 텍스트로 정리한 그림의 제목은 이러한 사회, 역사적으로 생성된 본인의 시각을 나타낸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 내는 자신의 삶 속에 투영된 시각적 이미지의 확립은 개인의 고유한 예술적 영역인 것이다. 또한 일상의 여러 단편 속에서 스쳐 지나간 인물들을 그린 초상화 시리즈는 역사적 또는 실제 인물의 개인사적인 부분을 배제시키는데 이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의 기호로 단순하게 표현한 작품의 제목을 통해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일상의 조형적인 표현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타내고 있는 시각과 감정, 현실과 가상의 경계 속에 있는 공간과 인물에 대해 작품화해 보았다.



[작품 1] 초상화 시리즈 전체 이미지, 각 31cm × 23cm, 2008-2009



[작품 2] 고기가 이에 낀 할아버지의 초상, 31cm × 23cm, 2008



[작품 3] 5년간 졸업을 못한 어느 여중생의 초상, 31cm × 23cm, 2009



[작품4] 故흑염소, 31cm × 23cm, 2008

[작품 1], [작품 2], [작품 3]

초상화 시리즈 전체 이미지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각, 31cm × 23cm

초상화 시리즈 에서는 여러 인물의 겉모습에 드러난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개인적인 기호학적 시선에 대해 이야기 한다. 현재 미디어의 홍수 속,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길들여져 있지만, 미적 기준과 인간의 외모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가장 평범한 것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 그런 평범함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오류를 초상화 시리즈에서 나타내 보고자 하였다.

초상화 시리즈에서의 여러 인물들은 본인의 눈에 보이는 그들 그대로의 모습이며 인물의 얼굴만 보고 떠오른 가장 일차적인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그림의 제목으로 나타낸다. [작품 2]의 제목인 <고기가 이에 낀 할아버지의 초상>이라는 그림의 제목으로 인해 실제 인물과는 다른 또 다른 인물로 변화 하는데 그것은 본인만의 주관적인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며, 인물의 외형적 모습인 기표와 본인의 생각인 이미지의 기의가 합쳐져서 ‘고기가 이에 낀 할아버지’ 라는 하나의 기호로 탄생하여 새로운 의미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각자의 ‘기호’ 로서 표현된다.

[작품 3]의 <5년간 졸업을 못한 어느 여중생의 초상>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감이 없었던 남자 조연배우 이지만, 그 역할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에서 느낀 부분을 다시 본인만의 기호인 ‘졸업을 못한 여중생’ 으로 탈바꿈 시킨다. 또한 실제와 가상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접 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작품 속에 등장하는데 건강식품인 엑기스로 죽음을 맞이한 흑염소를 그린 [작품 4]의 〈故흑염소〉 등 너무도 친숙하고 당연해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일상의 모든 생물체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각자의 또 다른 새로운 삶을 부여하고 위인전을 남기듯이 그들의 삶을 기록한다. 본인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 그것은 영화 속 인상 깊었던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같은 버스를 탔었던 인물일 수도 있으며 좋아하는 동물이나 사소한 인연이지만 나의 일상에서 잠시 스쳤던 여러 명의 사람일 수도 있다. 이처럼 일상의 예술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존재하고 있다.

초상화 시리즈의 실제와 가상의 경계 속 인물들은 눈동자가 없다. 눈의 움직임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눈동자를 통해 그 사람의 진실 또는 거짓을 알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을 통해 표현한 하나의 단순한 기호로써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눈동자와 시선은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각자의 현실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개인만의 고유한 시선은 모두 다 보편타당한 것이며, 단지 사회와 역사의 환경 속에서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가장 보편화된 시각만 아름답고 존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초상화 시리즈에서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작품5] 비웃음과 무거움, 긴장감과 적막함 뿐인 공간, 107cm × 142cm, 2009



[작품 6] 왜 모두들 이성을 잃을까, 97cm × 130cm, 2009

[작품 5]

제목: 비웃음과 무거움, 긴장감과 적막함 뿐인 공간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107cm × 142cm

[작품 6]

제목: 왜 모두들 이성을 잃을까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97cm × 130cm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행복하며 즐거운 삶 일 수도 있고, 하루하루가 외출타기를 하듯 힘겹고 긴장된 삶의 연속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표현한 〈비웃음과 무거움, 긴장감과 적막함 뿐인 공간〉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제목 그대로의 모습이다.

붉은색의 먹과 흑색의 먹이 대비된 나뭇가지만 앙상한 공간 속에서, 혼자 적막하게 누워있거나 머리에 생선을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인물 등은 가상의 공간 속에서 각자의 적막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그림의 공간속 실제 배경이 된 건물은 평양 공항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드나들며 교류하는 가장 열린 장소인 공항이 북한에 존재하는 모순된 현실의 아이러니를 붉은 색과 흑색의 강렬한 대비로 표현한 건물을 통해 나타내었다. 건물 위에 걸려있는 인물의 초상은 이러한 한정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실을 비웃고 있다. 그 인물은 세상사를 통달한 현인의 모습으로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도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연민의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의 제목은 초상화 시리즈와 같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드러낸다. [작품 6]의 〈왜 모두들 이성을 잃을까〉에서도 건물 속에서 비웃고 있던

얼굴은 똑같은 표정으로 그림 속의 가상공간을 바라보는데 이는 ‘그 힘겨움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인물의 표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들, 그것은 즐겁고 환희에 가득 찬 것일 수도 있고 무미건조한 일상의 지루함 또는 힘겹고 무거운 것의 연속 일수도 있다. 이처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숙명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표현해 보았다.



[작품 7] '타타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모습, 122cm × 192cm, 2008

[작품 7]

제목: 타타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모습’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122cm × 192cm

우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보통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알아내기란 쉽지 않지만 결국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 타타타(TaThaTa)는 산스크리트어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결국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만일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땐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다.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존재하는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욕심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확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무거운 삶을 역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가벼워지게 된다. 삶의 저항이나 거리낌 보다는 전체적인 수용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있어 절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림속의 두꺼비, 토끼, 부엉이, 나무늘보, 의수를 한 사슴 등은 다들 제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나무 의수를 한 사슴은 배에 몸을 의지한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고 있으며, 정처 없이 떠도는 외로운 삶을 위로 해주는 나무늘보도 존재한다. 이처럼 그림 속 등장인물 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작품 속의 모든 현상은 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작품 8] 지금까지의 모든 건 그저 허상이다, 95cm × 131cm, 2008

[작품 8]

제목: 지금까지의 모든 건 그저 허상이다.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95cm × 131cm

작품 속 동물들은 어딘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배경으로 표현한 공간은 흐느적거리는 높지대위에 서 있는 불안감과 아지랑이처럼 지나가는 하늘의 구름을 통해 작품속의 등장인물과 같은 심리상태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일 수도 있고, 가상의 공간 속 높지대와 흘러가는 구름처럼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 수도 있다. 등장인물과 공간에 대한 불안정한 이미지를 통해 개인적이거나 혹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설정하였다.

흐린 먹을 여러 번 중첩하여 표현한 높지대와 하늘은 1차원의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한계점인 공간감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표현하였고, 먹을 한번 씩 여러 번 칠해 점점 짙어지는 먹의 농도를 통해 본인의 심리와 그림 속 공간의 깊이 감을 동일시하였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들을 그림 속에 설정하는데, 깊이를 알 수 없는 강가와 호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우리의 다리로는 서 있을 수 없는 하늘의 무안한 공간감등에 대한 감정은 먹을 중첩하여 나타낸 어두운 공간 속에서 재현된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시 하는 일상의 평범한 공간도 개인에 따라서 즐거운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공포의 존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작품을 통해 표현해 보았다.



[작품 9] 내 슬픔을 새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118cm × 147cm, 2009



[작품 10] 내 슬픔을 꽃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45cm × 45cm, 2009



[작품 11] 내 슬픔을 생선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113cm × 124cm, 2009



[작품 12] 뭐 우리도 그닥 알고 싶지 않다, 38cm × 85cm, 2009

[작품 9]

제목: 내 슬픔을 새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118cm × 147cm

[작품 10]

제목: 내 슬픔을 꽃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45cm × 45cm

[작품 11]

제목: 내 슬픔을 생선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113cm × 124cm

[작품 12]

제목: 뭐 우리도 그닥 알고 싶지 않다

재료: 종이에 먹 혼합재료

크기: 38cm × 85cm

〈내 슬픔을 ...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시리즈는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과 인간 본연의 고독에 관한 이야기이다. 살아가면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은 막을 수 없으며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집착하고 지키려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간다. 지나간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애쓰는 동안 더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또 다시 후회는 반복된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까? ‘독창성의 진

짜 처소는 그 사람도 나 자신도 아닌, 바로 우리의 관계이다.’ 라는 말처럼 현대 사회를 살면서 나와 타인 이라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론 행복하거나 슬프기도 하며 우울하고 절망적 이기도한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하나의 면을 따라가다 보면 끝이 나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게 되는 피비우스의 연결고리처럼 얽혀 있다. 피비우스의 고리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흐르고 있다.

〈내 슬픔을...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시리즈 에서는 이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결고리처럼 얽혀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표현하였다.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반드시 존재하는 필요충분조건처럼 그림 속 인물들은 서로 얽혀있는 관계이다. 또한 이미지와 텍스트는 반어적인 관계로 나타내었는데, ‘~을 알리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의 뜻은 자신은 감정을 숨기고 있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슬픔을 알아줬으면 하는 구원의 뜻을 제목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내 슬픔을...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에서 〈뭐 우리도 그닥 알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을 통해 결국 본인의 힘겨운 슬픔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하는 현대사회의 이기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심은 누구도 탓할 수 없으며, 자신의 슬픔은 본인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고 다른 이가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고독의 근원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 표현해 보았다.

V. 결 론

우리는 수많은 기억의 창고에서 여러 가지의 기억을 꺼내고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이러한 기억들은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반성하게 해주며 또한 곧 나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뿌리의 역할도 해준다.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의 잣대와 사회의 고정관념을 이겨내며 본인만의 고유한 틀을 정착시켜 나간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법은 있지만, 그 기준의 잣대에만 벗어나지 않는 생각이라면 모든 것은 존중 받아야 하며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생각의 시작에서 출발하였다.

초상화 시리즈에서는 작품과 그림의 제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로 나타낸 여러 인물들을 통해 사회현상, 인종, 역사, 국가 또는 남자 여자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가치 규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이루어 내는 삶의 한 파편일 뿐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 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의 표현이며, 이러한 개인적인 시각의 틀로 완성된 생각들의 집합체인 일상 또는 가상의 공간을 그린 작품들을 통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들과 일상의 사소한 아름다움을 보는 개인의 시각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처럼 특정 문화의 가치를 보편적 자연적인 가치로 변형시키고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모습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파생되는 일상의 예술은 단편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은 그리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살면서 접하는 아주 흔한 일들이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표출된 표상들이다. 현실 속에서 각자에게 주

어진 생활을 하며 괴로움과 힘겨움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밝은 미래를 상상 하곤 한다. 내부의 열망으로부터 흘러나온 즐겁고 고통이 없는 특별한 가상의 공간은 어느 곳에서도 존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가상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며 만들어낸 생활 속 단편들의 기록을 계속 연구하고 표현할 것이다.

참 고 도 판



[도판 1] 바실리 칸딘스키, 〈노랑 빨강 파랑〉



[도판 2] 이미지의 배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도판 3] 카라바조,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도판 4] 피테르 브뤼헬, <농부의 혼례잔치>



[도판 5] 하르멘츠 반 레인 렘브란트, 〈34세의 자화상〉, 좌
하르멘츠 반 레인 렘브란트, 〈63세의 자화상〉, 우



[도판 6] 석지 채용신, 〈최익현 초상〉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립현대미술관, 「석지 채용신」, 삶과 꿈, 200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노만 브라이슨 외 지음, 「기호학과 시각예술」, 시각과 언어, 1995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봉인된 시간」, 분도 출판사, 1991
에릭 부스,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에코의 서재, 2009
조선미, 「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 문예 출판사, 1996

학위 논문

- 김행란,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안지훈, 미술에 나타난 텍스트(text)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ABSTRACT

Visual Expression Study on Daily Symbol and Meaning - Centering around My Work -

Jo, So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ll of us who live in modern society live, displaying artistic ability as a part of art. It seems that each one leads different life superficially, but we have our own special space, and common denominator is existing in daily art to be derived from this space of each one.

If daily result material that we shape while we live is beautiful, it is one art, and work that artist shapes which is evaluated as masterpiece is only another side of life. Art in the Old Stone Age performed the role of social norm as essential elements of our life such as clothes, food and house, and sculpture of whale and fish etc. took charge of important role to stick tribe people together as incantational meaning to pray for the prosperity of game. Like this, concept of art which was deemed natural in ancient life changed as time flowed, but routine which melted naturally in our life while we live at present is record of special life of each one and art of each individual. While we lead the diverse life, we get to contact numerous ideas and images made with

system and custom. Then, since we regard numerous thoughts and meanings formed from society system, history or cultural power by passing through long time as one natural phenomenon, we establish natural thing with our own view by image to be seen outwardly and believe and don't doubt that it is right.

In this study, I explain the difference of individual view from this social viewpoint through relation of characters in imaginary space or portrait of people. I make voluntary and prejudiced forms public by eliminating necessity from images woven like objective truth through works to show by changing subjective thought and images to see and feel with my view while leading daily life, and I present symbolical theory that everything which is surrounding us has valuable peculiar mythology of each one.

Like this, this researcher tried to study most gigantic fantasy to be naturalness to be prevalent in modern society that we get to think many universal thoughts as essence of real thing, that is, objective truth through society recognition and image fragments formed in the course of history that we have lived and the fact that daily one scene to make while we live may be the art of special life of each one in this study.